

일부 고교생의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최경숙, 이희정

대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모유를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은 아기에게 영양·면역·위생·심리학적 등의 이점을 줄 수 있고 또, 아기의 부모에게는 경제적인 이점을 줄 수 있으며 수유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수유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비율은 전체의 9.8%로 모유수유의 권장운동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실정으로 모유수유 영양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모유수유 교육은 현재 성인여성만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교육의 대상을 성인여성뿐 아니라, 미래의 출산과 모유수유를 하고 모유수유의 지지자가 될 청소년에게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기도 지역의 남녀고등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2년 3월에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세 이었고, 체격은 제 7차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제시된 16~19세의 청소년과 유사했으며, 거주지는 포천과 의정부였다. 그리고 84.3%의 대상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생했고, 53.3%가 모유수유 경험이 있었다. 부모는 대부분 40대이었고, 학력은 고졸이었고, 아버지 직업은 판매·서비스업(33.9%)이 많았으며, 어머니는 주로 주부(59.3%)였다. 미래의 출산계획은 대부분 자연분만이었고, 초유수유의 의지는 75.1%가 있었고, 모유수유를 계획한 학생은 35.9%이었으며, 혼합수유를 계획한 학생이 60.0%로 높게 나타났다. 모유정보의 경험은 30.3%가 있었고, 정보의 주체공처는 대중매체(74.6%) 이었다. 그리고 모유수유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단지 6.1%에 불과하였다. 모유수유 지식은 20점 만점에 9.84점으로 낮은 지식 수준이었으며, '모유성분'에 관한 지식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엄마측 이점'부분의 지식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각 문항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유의 정보와 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지식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p<0.001$), 여학생과 고학년에서 지식 수준이 높았다. 모유수유 태도는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4점으로 했을 때, 평균 2.95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감정적 측면'의 문항에서 가장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모유수유 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태도수준이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p<0.05$). 특히 모유수유의 정보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p<0.001$), 여학생과 고학년, 모유수유의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모유수유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p<0.05$). 모유수유 지식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태도도 긍정적이었으며($p<0.001$), 미래 모유수유의 의지가 있는 학생의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가 더 양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교생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지 않아 모유수유의 영양교육은 필요하며, 모유수유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 모유수유의 영양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영양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녀 고교생의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가 낮으므로 여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모유수유 교육은 필요하며, 미래의 배우자에게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한다. 그리고 현 고교생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모유수유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과정 중에도 모유수유 영양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